

The 56th Subscription Performance of Busan Metropolitan Dance Company

부산시립무용단 제 56회 정기공연



춤

이쁜이 사잡가는 날

전통적 혼례 풍습 속의 사랑이야기

저희 부산시립무용단은 솔직하고 담백하며 감동과 재미가 있는 공연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관객과 함께 호흡 할 수 있는 작품을 찾아 무대에 올릴 욕심에 “맹진사댁 경사”라는 원작을 다시 각색하여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로 재탄생시켜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 합니다.

한국 전통적 혼례의 풍습 속에 녹아 있는 청춘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단원들의 멋드러진 몸짓으로 살려내 신명나고 아름다운 춤극으로 올려 보았습니다.

공연이 오르기까지 힘써 주신 많은 스텝 분들과 특히 구슬땀을 흘리며 연습에 열중해 준 단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연이 관객 여러분들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춤극 “이쁜이 시집가는 날”을 통해 많은 행복을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5. 31

부산시립무용단 수석안무자 **흥 기 태**





각색 하현관



연출 오정국



의상디자인 이호준



무대 백철호

Staff



음악 서상환



Design&Photo 장준규



기획 박소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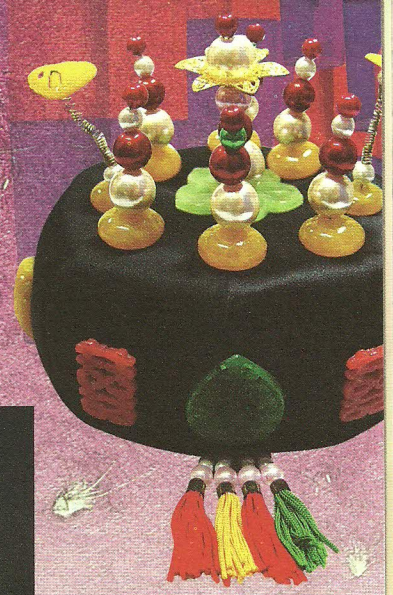


소품 안정숙



홍보 김태훈

갑가는날



이쁜이 박창희



갑분이 권봉정
(수석)



미언 최의옥

6.1

주역들



맹진사 부인 오숙례



삼돌이 이창규

제1막 태평성대(太平聖代)

제1장 함진애비

돈으로 벼슬을 산 맹진사댁.
 권문세가인 김판서댁과 혼인이 성사되어
 황금빛 함 행렬이 들어온다.
 맞이하는 맹진사와 가족들의 얼굴엔
 행렬의 웅숭함에 더욱 큰 웃음이 번진다.
 재물욕과 권력욕에 찬 그 웃음이
 불행을 자초하는 씨앗인 줄은 알지 못하고
 마냥 즐겁기만 한 가족들
 세상 모르고 천진난만한 아이들 같다.
 행복은 욕심으로 우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진데.

프롤로그

빙탄상애(氷炭相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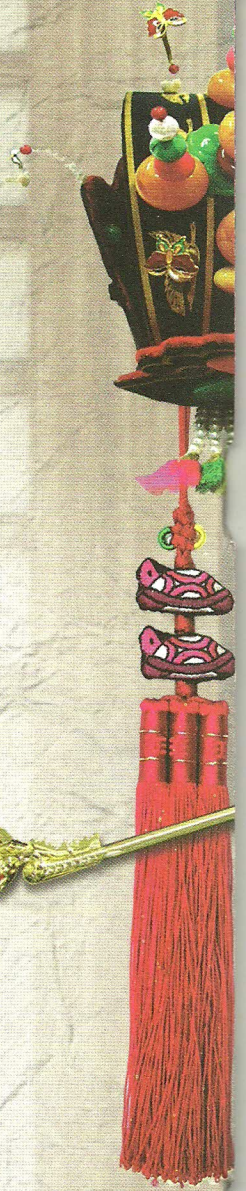
당신이 얼음이라면 나는 숯이 되려오.
 당신이 숯이라면 나는 얼음이 되리니.
 뜨거운 가슴으로 그대 언 마음을 녹이고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내가 식혀 지키리다.

제2장 희비(喜悲)

갑분은 꽃밭을 누비듯 행복하기만 한데
 부럽지도, 기뻐해 주지도 못하고 바라만보는
 이쁜이는 헤어짐이 아쉬워 치마 고름만 뜯는다.
 가지 말라 떼를 쓸까?
 같이 가자 우겨볼까?
 함께 살자 따라붙는
 삼돌이는 밍기만 하고.

제3장 섬섬옥수

온화한 봄날, 마을의 처녀 총각들 나들이를 즐기듯
 여유로운 풍경 속에 갑분은 시집가는 생각에 겨워
 마냥 행복한 모습이다.
 쓸쓸한 얼굴로 갑분을 따라 나왔던 이쁜이는
 버들잎 늘어진 우물가에서 물을 길는다.
 그런 가운데 어느듯 나타난 낯선 사내가 물을 길는
 이쁜이에게서 물을 얻어 마시게 된다.
 사내는 이쁜이를 붙에 떠 흔들리는 이파리보다 푸르고
 우물 보다 깊은 눈길로 조용히 바라본다.



제2막 연목구어(緣木求魚)

제1장 소문

신랑의 숙부 명정이 '신랑은 절름발이'라고
소문을 흘리자, 그 소문이 맹진사네까지
흘러들어가고 맹진사네 난리가 났다.
일가친척 모두 모여 회의를 한다.
너도 절뚝 나도 절뚝 대책을
논하지만 묘책이 안 나온다.

제2장 덧옷

갑분을 놀리는 동네처녀들을 내쫓고
이쁜이는 심술 난 갑분을 달랜다.
은전한 사랑, 그 진정한 마음만이
서로를 이어 살게 하는 것이지
몸의 잘나고 못남은
덧입은 옷과 같은 것이라고.

제3장 청맹과니

그 모습을 본 맹진사는 이쁜이를
대신 보내기로 한다.
갑분을 숨긴다.
이쁜이를 설득한다.
혼사를 대신 치루라는 맹진사의 말에
어찌할 바를 몰라 괴로워하는 이쁜이.
세도가와의 연으로 덕을 보려는 욕심이
절름발이 신랑을 만들고
그 신랑을 피하고자 다시 갑분의 혼사를
막게 되는 맹진사는 눈뜬 봉사와 같다.

제3막 백년가약(百年佳約)

제1장 초례

초례가 치러지는 날.
잔치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당도한다.
헛소문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신랑의 늙은 모습을 보게 된다.
비록 떠밀려 나왔지만 죄스러움에
몸 둘 바를 모르는 이쁜이.
그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상황을 되돌리려는 맹진사.
일을 꾸며내 착한 이쁜이를
얻게 된 미연의 흐뭇한 미소.
이쁜이를 잃게 된 삼돌이의 한탄.
이것들이 어우러진 가운데 초례는 시작되고
갑분이 뒤늦게 당도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다.

제2장 초야

주렴을 늘인 신방.
거짓 혼인이 죄스러워 눈물과 함께
사죄하고 용서를 비는 이쁜이.
미연은 거짓을 숨기지 못하는 이쁜이의
그 모습 또한 사랑스러울 따름이다.
그 또한 속이고 꾸민 일에
용서를 빌며 그녀를 감싼다.
헛되고 잡스런 마음 사라지듯
신방의 불이 꺼지자 어긋난 욕심으로
주저 앉아버린 맹진사네 가족들.
술취한 삼돌이만 즐겁다.



에필로그

청사초롱

새로이 불빛들이 하나씩 밝혀진다.
마음의 불, 사랑의 불, 기쁨의 불, 우정의 불.
또 불빛들 밝아진다.
권세의 불, 금전의 불, 재물의 불.
그렇게 피어난 오색의 불빛들이 찬란히 출렁인다.
세상을 밝히며, 어지러이 떠돌며
화려히 노니는 빛들이 어우러져 세상에 넘친다.
그러나 더욱 아름다운 것이 있다.
보기 좋은 것도 마다하고 갖기 쉬운 것도 마다하고
사랑이라는 진실한 마음으로 만난 두 사람.
이뿐이와 미연의 행복을 기원하며
축하의 불빛들이 춤춘다.